

서평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 「지리」의 서지

최원희*

I. 서론

필자는 2000년대 초에 현대한국지리학사(現代韓國地理學史)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다음과 같은 3건의 자료들을 접한 바 있다:

자료 1: “각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은 각 학과에서 학술잡지(學術雜誌)의 발간 ... 등으로서 알 수 있다. 학술잡지의 발간에 있어서 특기할 사항은 우리나라에서 ‘지리(地理)’라는 제자(題字)가 붙은 최초의 잡지가 대한지리학회(大韓地理學會)보다도 앞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에서 학생 중심으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이다. …… 각 대학 및 대학원에서 발간되고 있는 학술잡지는 다음과 같다(창간연도순):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地理)>, 1959년 창간, 2호로 중단상태.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녹우회보(綠友會報)>, 1959년 창간, 1975년까지 17호 출간”(정장호, 1976:44·47)¹⁾

자료 2: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지: 한국에서 체제를 갖춘 정식학회지가 출현한 것은 물론 1963년 대한지리학회지 제1호이다. … 그러나, 학회지의 체제나 질에 상관없이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지를 논지한다면 그것은 대한지리학회 회지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생 중심의 지리학회지가 그 효시이다. 활자화된 잡지로는 이것이 한국 최초로서 1959년 1월에 간행되었고, 내용은 논설, 답사보고서, 학내소식, 졸업생 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명(題名)은 「지리」이고, 국판 57쪽의 빈약한 내용이었으나, 대한지리학회 회지가 간행된 시점보다 4년이 앞선 학회지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잡지는 제2호를 1962년에 프린트물로 내고 절판되었으나, 4×6배판 102

쪽으로서 내용의 짜임새도 한결 높은 수준이었다.”(형기주, 1995:2)

자료 3: “대한지리학회는 1945년 처음 창립총회를 갖고 시작되었으나, 공식적인 학술지는 1963년에 발간되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학과 중심으로 최초의 학술지를 창간하였다. 「지리」 제1권 제1호는 1959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에서 출간하였다. 그리고 제2호가 1962년에 속간되었으나, 더 계속되지 못했다. 「지리학보」는 1962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에서 제1집이 출간되었다. 이 두 학회지가 비록 대학사회에서 시작되었다가 그 당시 계속되지 못했지만, 교수와 대학원생, 재학생의 논문과 현장 답사기를 게재한 최초의 학술지였다.”(이찬·이기석, 2002:11)

필자는 위와 같은 내용 중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學會)가 1959년에 발행한 「지리」 제1권 제1호는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잡지(地理學術雜誌)·지리학회지(地理學會誌)·지리학술지(地理學術誌)’이다. 「지리」 제1권 제1호 및 제2호 모두는 1963년에 대한지리학회가 그의 학회지, 「지리학(地理學)」을 창간하기에 앞서 발행되었다. 또한, 「지리」 제2호는 1962년에 속간되었으나, 이후 절판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지리」 제1권 제1호 및 제2호의 서지(書誌)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리」 제1권 제1호가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잡지·지리학회지·지리학술지’이다”라는 사실에서 「지리」 제1권 제1호의 의미를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잡지’ 또는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지’로 규정하기보다는 ‘한국 최초

*국립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wh@kongju.ac.kr)

의 지리학술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지리학술지의 개념에 지리학술잡지 및 지리학회지의 개념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필자는 「지리」제1권 제1호 및 제2호와 이들의 발행 전후에 발행된 지리학술지들의 소재(所在)를 추적했는데, 그 결과, 1963년에 대한지리학회 학회지, 「지리학」을 발행하기 이전인 1959년과 1962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와 각각 순서대로 발행한 「지리」제1권 제1호 및 제2호를 비롯하여 1962년에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地理學科: 현재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가 발행한 「지리학보」1집, 그리고 1963년 「지리학」 발행 이후인 1966년에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가 발행한 「지리학보」제3호 등을 2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원본이나 파일 형태로 입수할 수 있었다.²⁾

필자는 위와 같은 지리학술지들의 입수과정에서 정장호(1976:47), 형기주(1995:2) 및 이찬·이기석(2002:11)이 기존에 확인한 바와 같이 1959년에 창간된 「지리」제1권 제1호보다 발행시기가 앞서는 지리학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필자는 「지리」제1권 제1호 및 제2호와 「지리학보」1집 및 제3호의 서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를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www.riss.kr/>), 「한국지리논문목록: 1945~1980」(이기석·윤정숙, 1982), 「한국지리논문목록: 1981~1985」(이기석·한주연, 1988), 「한국지리논문목록: 1986~1990」(이기석·김영현, 1993) 등에서 찾았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제1권 제1호 및 제2호의 서지를 1개 단락 정도의 문장으로 소개한 정장호(1976:47), 형기주(1995:2) 및 이찬·이기석(2002:11)의 연구 이외에는 해당 선행연구가 전혀 없고, 「한국지리논문목록: 1945~1980」(이기석·윤정숙, 1982)에 「지리」제1권 제1호 및 제2호와 「지리학보」1집 및 제3호에 게재된 논문·단보·답사보고의 일부 목록만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지리」제1권 제1호 및 제2호와 「지리학보」1집 및 제3호의 서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리학보」1집 및 제3호의 경우 「지리학보」1집은 원본을 입수했으나, 「지리학보」제3호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수원보존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한 권의 원본의 일부에 한하여 스마트폰 촬영 파일의 입수만 가능해서, 「지리」제1권 제1호 및 제2호의 서지 연구는 가능하나, 「지리학보」1집 및 제3호의 서

지 연구는 「지리학보」1집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1959년에 발행되어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로 간주되는 「지리」제1권 제1호(이하, 「지리」제1권 제1호(1959)’)로 칭함)와 「지리」제1권 제1호에 이어서 1962년에 발행된 「지리」제2호(이하, 「지리」제2호(1962)’)로 칭함)를 대상으로 그들의 서지를 발행경과, 발행주체, 성격, 편집위원회, 인쇄시기·발행 시기·권호, 인쇄유형·판형(判型)·지질(紙質), 표지 디자인·내지 편집형태, 내용구성, 소장자·현재상태, 편집후기·개략서지(概略書誌)·서적광고, 발행의의·영향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분석의 결과는 현대한국지리학사에서 현대 한국 지리학 초창기의 지리학술지의 창간 및 발행 내역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1950년대 후반 당시 한국 지리학의 교육·연구의 동향 및 수준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의 서지

1.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서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발행한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앞표지(국문표지)·뒤표지(영문표지), 내지 56쪽, 부록 지도 1매 및 뒤표지 이면 편집후기·개략서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발행경과, 발행주체, 성격, 편집위원회, 인쇄시기·발행시기·권호, 인쇄유형·판형·지질, 편집형태, 내용구성, 소장자·현재상태, 편집후기·개략서지·서적광고, 발행 의의·영향 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발행경과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발행경과는 논설(論說)³⁾에 앞서 게재된 최복현(崔福鉉) 교수⁴⁾의 ‘답사계획에 대하여’(1~2쪽)와 뒤표지 이면의 ‘편집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답사계획에 대하여’는 창간사 및 권두언 격에 해당된다.

우선, 최복현 교수의 ‘답사계획에 대하여’에서 발행경과 관련 내용을 보면, “지리과 창설 이후 10년 만에 연보

(年報) 형태의 ‘지리과 기관지’를 발간하는데, 이에 는 주로 매년 실시하는 답사보고를 수록하고, 재학생과 졸업생과의 연결(유대)을 도모하기 위해 지리과내 소식과 졸업생 동정을 함께 수록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잡지가 학계에 귀중한 존재가 되도록 성장, 발전시켜야, 즉 한국지리학계에 기여하도록 성장시켜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편집후기’에서 발행경과 관련 내용을 보면, “처음 계획했던바 그대로를 이루지 못한 채 서투른 편집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매년 연말이면, ... 우리들의 노작(勞作)의 결과가 ... 과거 1년을 반영해 줄줄로 믿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리」 제1권 제1호(1959)의 발행경과를 정리하면, “「지리」 제1권 제1호(1959)는 ‘연보 형태의 지리과 기관지’이면서 동시에 ‘한국지리학계에 기여하는 잡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리」 제1권 제1호(1959)에 게재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회칙 및 임원(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學會 會則 及 任員)(이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회 회칙’ 또는 ‘회칙’으로 약칭함)(51~52쪽)에 의하면,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라 칭하고(제1장 총칙 제1조), 지리과 및 지리교육에 관한 학술연구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제1장 총칙 제2조), 그리고 학술연구, 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회보발간 등의 사업을 한다(제3장 사업 제4조)고 규정하고, 그에 준하는 학회활동을 통해서 지리학회지 형태의 지리학술지, 「지리」 제1권 제1호(1959)를 발간한 것으로 보인다.

2)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발행주체

「지리」 제1권 제1호(1959)의 발행주체(발행인)는 앞표지(국문표지) 하단과 뒤표지(영문표지) 이면 개략서지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學會)⁵⁾로 표기되어 있고, 뒤표지 하단에 ‘Geographic Institute of Educational College Seoul University’로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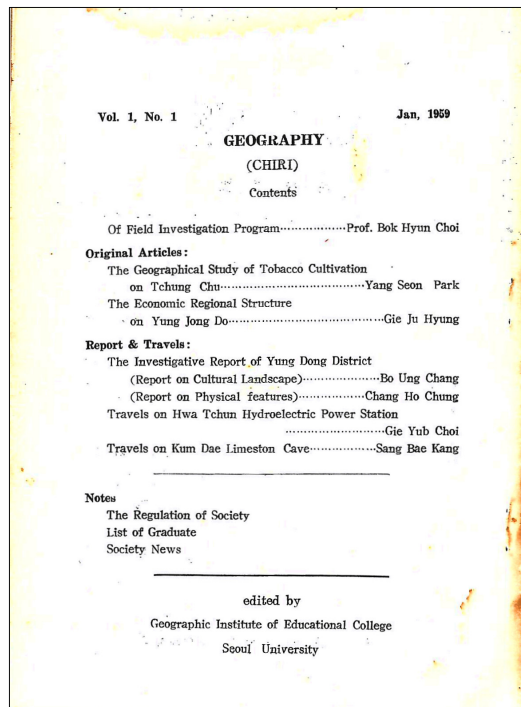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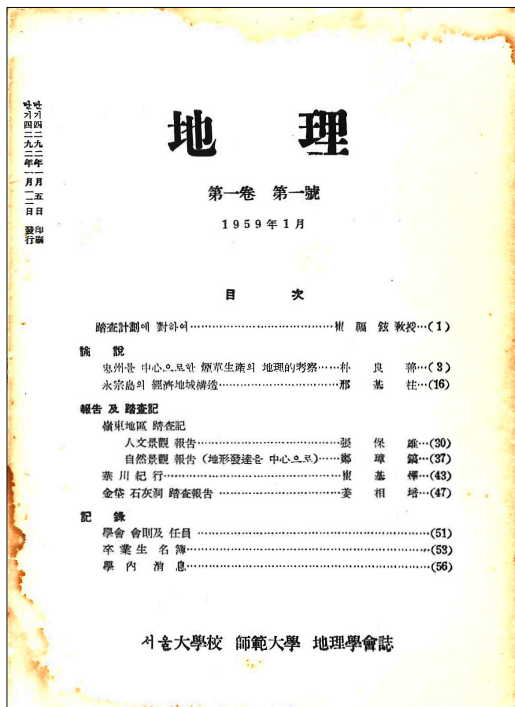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인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국문표지(좌) 및 영문표지(우)

출처 : (좌)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59:앞표지. (우)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59:뒤표지.

* 「지리」 제1권 제1호(1959)가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라는 것은 ‘한국에서 최초로 창간된 지리학술지’이면서 ‘한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지리학술지’임을 의미한다. 이기석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는 「지리」제1권 제1호(1959) 두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림의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그 중의 하나이다.

기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회칙 및 임원’의 ‘제2장 회원’의 ‘제3조 제1~3항’에 근거하여 본대학 지리과 재학전원(在學全員), 본대학 지리학 교수 및 강사(고문) 그리고 본대학 졸업생(명예회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3자 중 핵심적 발행주체는 본대학 지리과 재학전원, 즉 ‘본대학 지리과 재학생’이다.

3)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성격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회칙 제4조(사업) 제3항(회보 발간)’에 의거하여 발행한 ‘지리학회지 형식의 지리학술지’이면서 동시에 권두사 격의 ‘답사계획에 대하여’(1~2쪽)의 서두에서 당시 최복현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지리과 잡지(地理科雜誌)’로서 ‘지리과 기관지(地理科機關誌)’의 성격도 갖고 있었다.

부연하면,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기본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발행한 ‘학회지 형식의 지리학술지’, 즉 ‘지리학회지’였으면서 부차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의 ‘지리과 기관지’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더 부연하면, 「지리」제1권 제1호(1959)가 “기본적으로 ‘지리학회지’였다.”는 것은 발행주체(발행인)가 회칙과 임원 조직을 갖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로서 ‘논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학회지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지리과 기관지’였다.”는 것은 권두사 격의 ‘답사계획에 대하여’의 언급 외에 ‘보고 및 답사기’와 ‘졸업생 명부 및 학내 소식’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4)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편집위원회

「지리」제1권 제1호(1959)에는 ‘편집위원회 조직’과 ‘편집위원 명단’은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

5)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인쇄시기·발행시기·권호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인쇄시기 및 발행시기는 앞표지의 좌측 상부와 뒤표지 이면의 개략서지에 각각 순서대로 1959년 1월 5일과 1959년 1월 12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인쇄에 앞서 실제

적 편집작업은 발행 직전 해인 1958년 연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뒤표지 이면의 편집후기의 “앞으로도 매년 연말이면 이와 같은 우리들 노작(勞作)의 결과가 거울처럼 과거 1년을 반영해 줄줄로 믿는다.”라는 내용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리」제1권 제1호(1959) 표기에서 ‘권’은 1년간 2건 이상의 ‘호’를 발행한다는 의미임을 감안하면, 「지리」창간 당시 발행주체들이 1년에 2건 이상의 호를 발행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제1권에서 제1호 이외의 다른 호는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다.

6)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인쇄유형·판형·지질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인쇄유형은 활판인쇄본(活版印刷本)이다.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규격(規格)을 판형으로 보면 국판(菊判: 148×210mm)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의 人文地理學會(인문지리학회)가 발행하고 있던 학회지 「人文地理(인문지리)」 및 미국의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가 발행하던 「Geographical Review」의 규격 판형인 국판을 주로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지질을 보면, 앞표지(국문표지) 및 뒤표지(영문표지)는 두터운 스노우지(snow紙)를, 그리고 내지(內紙)는 얇은 스노우지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7)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표지 디자인·내지 편집형태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앞·뒤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도 판형과 마찬가지로 당시 人文地理學會가 발행하고 있던 학회지 「人文地理」, 미국의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가 발행하던 「Geographical Review」를 주로 참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8)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내용구성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내용은 앞표지에 기재된 목차를 통해서 보면, ‘답사계획에 대하여’ 이외에 논설 2편, 보고 및 답사기 4편 및 기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별 필자는 지리과 내외의 교수, 대학원생(석사과정) 및 학부생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1) 답사계획에 대하여

‘답사계획에 대하여’는 학과 주임교수로 추정되는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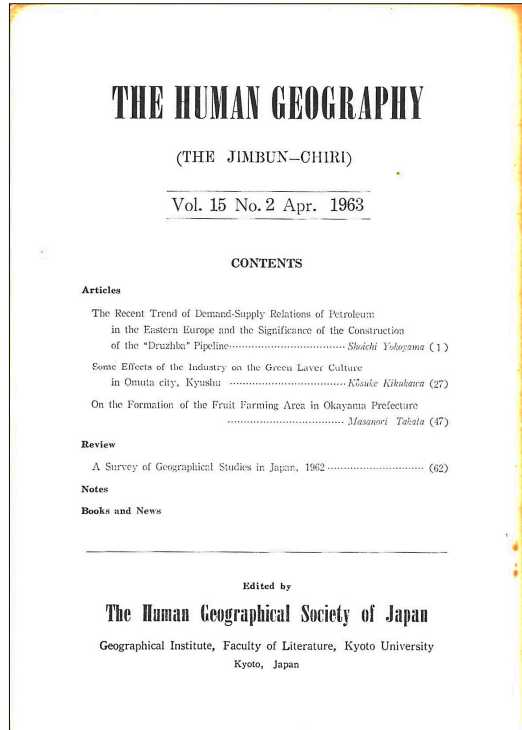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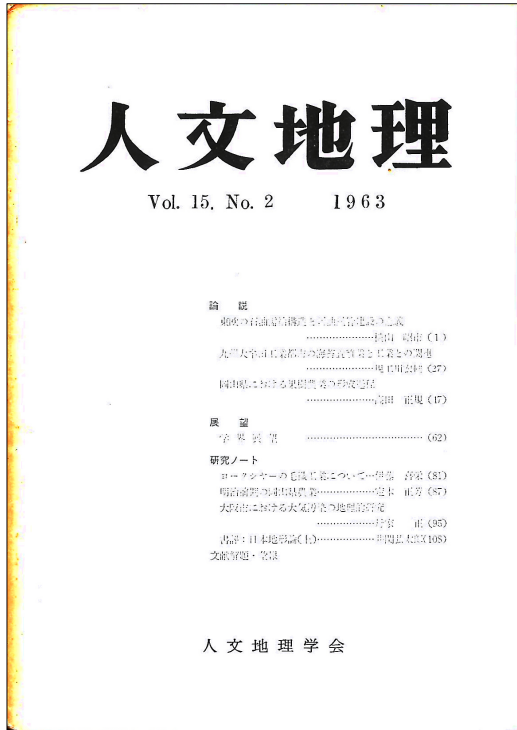


그림 2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발행에 주로 참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人文地理」근접 권호(Vol.15, No.2, 1963년 4월)의 일문표지(좌) 및 영문표지(우)

출처 : (좌)人文地理學會, 1963:앞표지. (우)人文地理學會, 1963:뒤표지.

*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규격 판형(국판)과 앞·뒤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는 당시 일본의 人文地理學會가 발행하던 「人文地理」의 그것들을 주로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제1권 제1호의 창간은 1959년에 이루어졌으나, 필자가 접한 「人文地理」 가운데 1959년에 가장 근접(近接)한 것은 Vol.15, No.2(1963년 4월)이다. 그림의 「人文地理」는 「지리」의 창간 시기인 1959년보다 4년 늦은 근접 권호(Vol.15, No.2, 1963년 4월)이나, 필자가 알기에 1959년 직전에 발행된 「人文地理」도 그림의 「人文地理」근접 권호와 규격 판형,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 등이 거의 동일하다. 그림의 「人文地理」Vol.15, No.2(1963년 4월)는 필자의 소장본이다.

복현 교수가 작성한 창간사 격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의 주요 내용을 압축하면, “「지리」는 답사보고서(답사결과 수록 연보), 지리과 기관지 및 한국 지리학계에 기여하는 지리과 잡지의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한편, ‘답사계획에 대하여’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그의 ‘회칙’에 의거하여 학회지 「지리」를 창간한다.”는 언급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회칙에서 다소 벗어나서 ‘답사계획 및 답사보고’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리학회를 만든 학생들의 의도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면, 이는 「지리」제1권 제1호(1959)가 회칙과 내용구성에서 전반적으로 ‘지리학회지’ 형태의 지리학술지로서의 성격과 체제를 명확히 하

고 있고, 「지리」제2호(1962)가 ‘지리학술지’로서의 성격과 체제를 보다 더 명확히 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2) 논설

‘논설’은 “총주를 중심으로 한 연초생산의 지리적 고찰”(3년 박양선(林良善)) 및 “영중도의 경제지역구조”(대학원 형기주(邢基柱))의 총 2편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논설의 ‘일반적 구성 형식’으로서 ‘서론·본론·결론 및 영문요약’을 갖추고 있고, 논설 2편 중 영중도의 경제지역구조’는 대학원 석사과정생이 작성했다는 특이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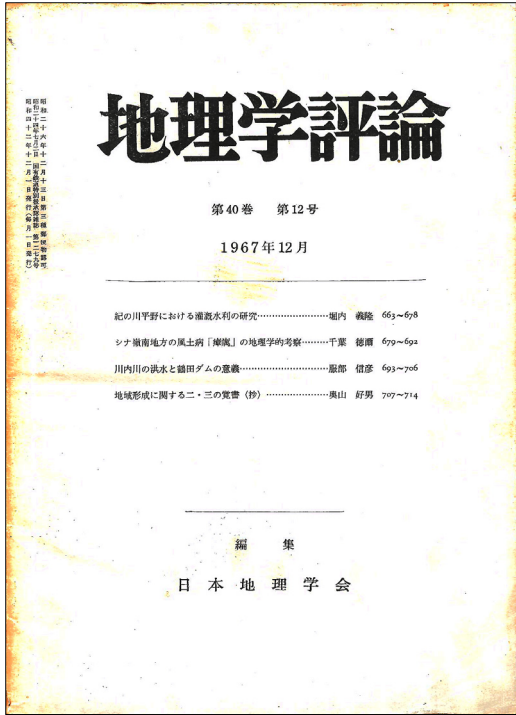


그림 3.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의 발행에 참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地理學評論」 근접권호(제40권 제12호, 1967년)의 일문표지

출처 : 日本地理學會, 1967:앞표지.

*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의 앞·뒤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는 당시 일본의 人文地理學會가 발행하던 「人文地理」의 그것들 이외에 日本地理學會가 당시 발행하던 「地理學評論」의 그것들도 많이 참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지리」제2호(1962)의 판형인 사륙배판은 「地理學評論」의 그것을 전적으로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의 「地理學評論」은 「지리」의 창간 시기인 1959년 및 속간 시기인 1962년보다 각각 수년씩 늦은 근접 권호(제40권 제12호, 1967년 12월)이나, 필자가 알기에 1959년 및 1962년 직전에 발행된 「地理學評論」도 그림의 「地理學評論」 근접 권호와 표지 및 내지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그림의 「地理學評論」제40권 제12호(1967)는 필자의 소장본이다.

(3) 보고 및 답사기

‘보고 및 답사기’는 “영동지구 답사기: 인문경관 보고”(4년 장보웅(張保雄)), “영동지구 답사기: 자연경관 보고”(4년 정장호(鄭璋鎬)), “화천기행”(1년 최기엽(崔基燁)) 및 “금대 석회동 답사보고”(2년 강상배(姜相培))의 총 4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강원도 영동 및 영서 지방 일대의 답사보고서이다.

(4) 기록

‘기록’은 ‘학회 회칙 및 임원’, ‘졸업생 명부’ 및 ‘학내 소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회 회칙 및 임원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게재된 ‘학회 회칙 및 임원(51~52쪽)’ 중 ‘회칙’은 ‘총 8장 17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8장은 제1장 총칙(명칭, 목적), 제2장 회원(구성), 제3장 사업(학술연구, 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회보발간 등), 제4장 임원(회장, 부회장, 부장), 제5장 선거(회장 및 부회장은 추천에 의한 직접선거, 부장은 추천에 의한 인준), 제6장 집회(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 제7장 재정(회비, 입회금, 보조금) 및 제8장 부칙(회칙 개정)으로 구체화 되어 있다.

또한, ‘학회 회칙 및 임원’ 중 ‘임원’에는 고문, 회장, 부회장, 부장 및 명예회원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문화부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전원이 학부 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고문: 본대학 지리과 교수 및 강사, 회장: 유준영(劉俊永, 3년), 부회장: 임한수(林漢洙, 3년)·이현영(李賢英, 3년), 부장: 총무부 채영석(蔡永錫, 3년)·문화부 이수문(李秀文, 2년)·연구부 조동우(趙東羽, 3년)·도서부 권혁재(權赫在, 3년),⁶⁾ 명예회원: 본대학 지리과 졸업생⁷⁾

② 졸업생 명부

‘졸업생 명부’(53~55쪽)에는 1948년(4281년) 졸업 제2회부터 1958년 졸업 제12회까지 총 134명의 회별 졸업생수와 명단 및 소속 직장·대학원명이 기재되어 있다. 1948년 졸업 제2회는 서울대학교 졸업회수인데, 이는 사범대학 지리과 졸업회수로는 제1회에 해당된다.

③ 학내 소식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학내 소식’(56쪽)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의 내용은 ‘학과 소식’이다. ‘학내 소식’의 위 부분에서는 1958년(4291년)의 제1학기 및 제2학기의 과내행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주로 답사 실시, 답사보고회, 신입생 환영행사, 과내외체육행사 등에 관한 것이다. 학내소식(56쪽) 중 아래 부분에는 “1958년에 와서 김상호(金相昊) 교수가 저술한 「지리학개론(地理學概論)」과 최복현 교수가 번역한 「경제지리(經濟地理)」가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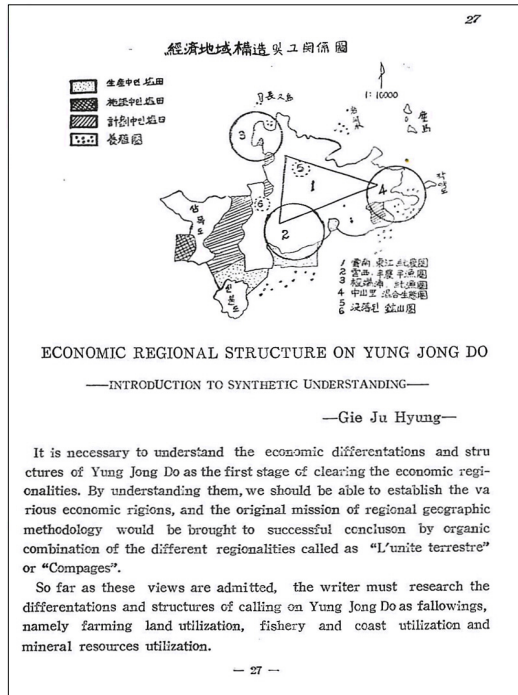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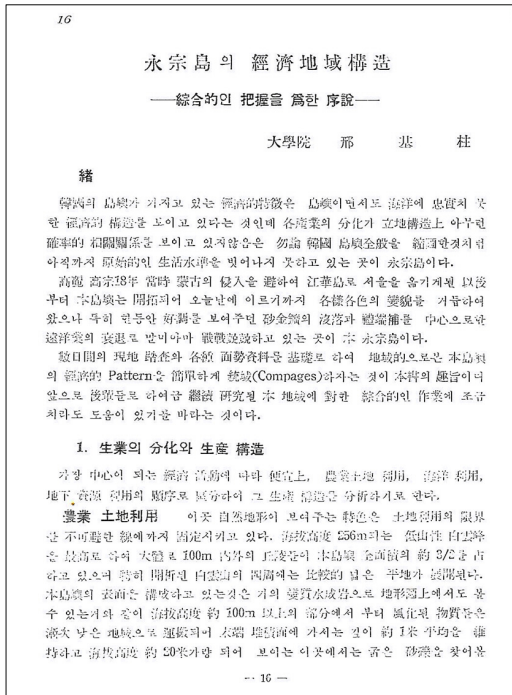


그림 4.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게재된 형기주의 논설, “영중도의 경제지역구조: 종합적인 파악을 위한 서설”(일부)

출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59:16·27.

* 그림의 좌측은 논설의 ‘첫째 쪽’이고, 우측은 논설의 ‘영문요약’ 중 일부가 게재된 쪽이다. 형기주의 논설에서는 영중도 지역의 생업(生業)의 분포와 생산구조 및 경제활동에 의한 지역설정에 관해서 밝히고 있다. 논설에는 4개의 그림, 1개의 표 및 영문요약(2쪽 반)이 첨부되어 있고, 학술지의 말미에 별도로 부록 지도 1매(수기(手記)로 그린 ‘영중도 1:50,000 지형도’)가 첨부되어 있다. 이 논설은 부록 지도 1매를 제외하면, 총 15쪽 분량으로 작성되어 있다. 위 논설의 작성자 ‘형기주’는 당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이었고, 후일 프랑스 파리 I 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취득했고(1982년),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를 역임했다.

성되어 나왔다.”고 소개하고 있고, 이지호(李智皓) 교수의 기존 간행본인 「세계지리통계(世界地理統計)」의 증보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학내소식」(56쪽) 중 맨아래 부분에 “학기초에는 본학회가 그간 활동하고 연구하였던 각양각색의 내용을 발표하는 보고회 및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⁸⁾

9)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소장자·현재상태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이기석 명예교수가 두권을, 그리고 민흥기 전 교장(경기고등학교(京畿高等學校))이 한권을 각각 소장하고 있다.

이기석 명예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지리」제1권 제1호(1959) 두권 중 하나가 그림 1의 것인데, 이의 앞표지와 제1쪽 사이의 백지간지에 ‘4292. 4. 28. 재기’라는 사인

(signature) 형태의 자필서명(自筆署名)과 원형도장(圓形圖章)의 적색날인(赤色捺印)이 있는데, 이로 보아 이 서책의 최초 소장자는 황재기 명예교수(黃載機, 1935~201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로 추정된다. 황재기 명예교수의 자필서명에서 4292는 ‘단기 4292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서기로는 1959년으로, 「지리」제1권 제1호의 간행년도에 해당된다.

이기석 명예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지리」제1권 제1호(1959) 두권 중 다른 하나에는 앞표지 우측 상단부에 청색의 증정인(贈呈印)이 날인되어 있고, 앞표지와 제1쪽 사이의 백지간지(白紙間紙)의 우측에는 ‘徐明源先生(서명원 선생)⁹⁾’이라는 수령자의 성명과 존칭이 표기되어 있다. 이로 보아서 이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발행인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서명원 선생에게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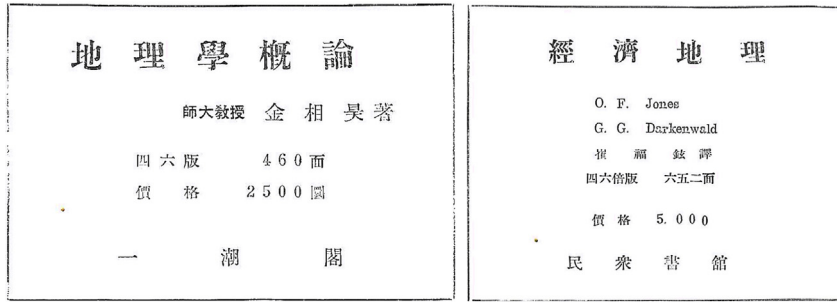


그림 6.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게재된 ‘서적 광고’: 「지리학개론」·「경제지리」

출처 : (좌)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59:46. (우)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59:50.

* (좌)그림의 김상호의 「지리학개론」은 1958년에 일조각(一潮閣)에서 간행된 초판이다. (우)최복현의 번역서, 「경제지리」는 1958년에 서울대학교번역총서로 민중서관(民衆書館)에서 초판이 간행되었다. 「경제지리」의 원저는 Jones and Darkenwald가 1954년에 뉴욕의 The Macmillan Company에서 간행한 「Economic Geography」(Revised Edition)인데, 이 원저의 초판은 1941년에 간행되었다(Jones and Darkenwald, 1954, 최복현 역, 1958).

쪽) 중 아래 부분에는 이지호 교수의 기존 간행본인 「세계지리통계」에 관해서 “신년도에 들어와서 기대할만한 것으로는 이지호 교수 저 「세계지리통계」가 보다 풍부한 내용과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증보(增補)될 것이며 ……” 라고 소개하고 있다.

11)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발행의의·영향

정장호(1976:44·47)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에서 학생 중심으로 출판된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로서 1963년에 대한지리학회가 창간한 학회지 「지리학」보다도 앞서서 한국에서 창간시기가 가장 빨랐다. 또한, 「지리」제2호(1962)의 ‘편집 후기’의 첫째 쪽(101쪽)에는 ‘한국 유일(唯一)의 「지리」로서’라는 자구가 나오는데, 이는 「지리」제2호(1962)가 발행될 때까지도 「지리」가 ‘한국 유일의 지리학술지’였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하여, 필자의 여러 해에 걸친 조사에서도 한국에서 해방 이후 「지리」제1권 제1호(1959)보다 앞서 발행된 지리학술지는 현재까지는 더 이상 없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사항들에 의거하면,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한국에서 1945년 해방 이후 최초로 발행된 지리학술지’, 즉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로 간주된다. 부연하면,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인데, 여기서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는 ‘한국에서 최초로 창간된 지리학술지’이면서 ‘한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를 의미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체제를 갖춘 최초

의 지리학회지’는 「지리학」제1호(1963)이지만, 체제나 질에 상관없이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지’를 지목한다면 그것은 「지리학」제1호(1963)가 아니라 「지리」제1권 제1호(1959)이다(형기주, 1995:2).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1945년 창립된 대한지리학회가 1963년에 학회지, 「지리학」을 창간하는데 결정적 자극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하여,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1958년 설립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학생회가 1962년에 「지리학보」1집을 창간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지리」제2호(1962)의 서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발행한 「지리」제2호(1959)는 앞표지(국문표지)·뒤표지(영문표지), 내지 102쪽 및 편집후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발행경과, 발행주체, 성격, 편집위원회, 인쇄시기·발행시기·권호, 인쇄유형·판형·지질, 표지 디자인·내지 편집형태, 내용구성, 소장자·현재상태, 편집후기·개략서지·서적광고, 발행의의·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리」제2호(1962)의 발행경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1959년에 「지리」제1권 제1호를 발행한 이래 3년이 지난 1962년에 제2호를 발행했으나, 1963년 이후 더 이상 속간하지 못했다. 이는 전

술한 바와 같이 정장호(1976:47)의 언급(“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지리」는 1959년에 창간되어 창간 시기가 가장 빨랐으나, 2호로 중단 상태에 있다.”), 형기주(1995:2)의 언급(“학회지의 체제나 질에 상관없이 ‘한국 최초의 지리 학회지’를 논지한다면 1959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에서 발행된 지리학회지「지리」인데, 이는 1962년에 제2호를 프린트물로 내고 절판되었다.”) 및 이찬·이기석(2002:11)의 언급(“『지리』제1권 제1호는 1959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에서 출간하였다. 그리고, 제2호가 1962년에 속간되었으나, 더 계속되지 못했다.”)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필자가 최근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방면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1963년 이후「지리」의 발행 중단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우선 학회 내적으로는 “졸업생 선배들에게 발행 경비 보조를 요청하고 인쇄가 아닌 프린트본으로 발행할 만큼 발행 비용 확보가 어려웠던 것”(편집 후기, 101쪽), 즉 “졸업생 선배를 찾아다닐 정도로 자금 문제가

고난했던 것”(“학회지의 장래를 위한 제언”, 94쪽), 양질의 논문 원고 확보가 어려웠던 것 등의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학회 외적으로는 지리과 소속 교수 및 학생들이 대한지리학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특히 일부 교수들이 1963년의「지리학」 창간에 종사하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기능 및 대한지리학회 기능이 부분적으로 중복된 것,「지리」 및 「지리학」 기능이 부분적으로 중복된 것 등의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¹²⁾ 이와 관련해서 부연하면, 1963년의 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의 창간은 역설적으로 1963년 이후「지리」의 발행 중단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당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의 소속 교수진이 수적으로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대한지리학회 회원으로서 대한지리학회의 학술활동 및 학회지「지리학」창간에 직·간접적으로 활발히 관여했고, 학생들도 대한지리학회의 준회원으로서 학술활동에 참여하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학술활동이 위축됐고,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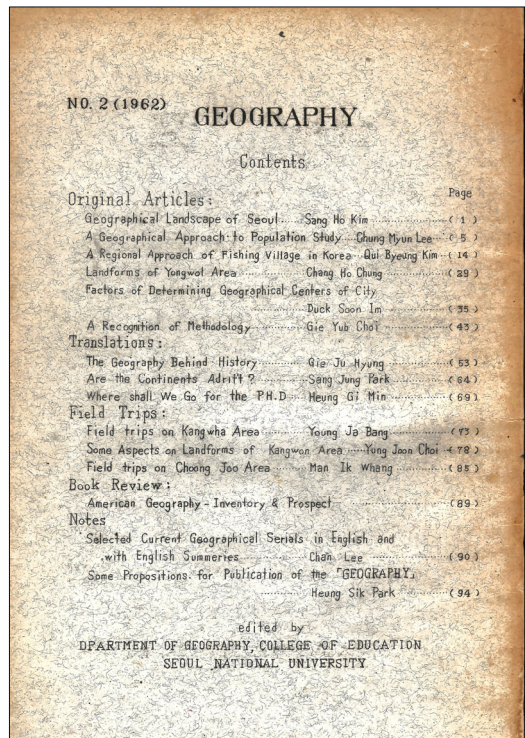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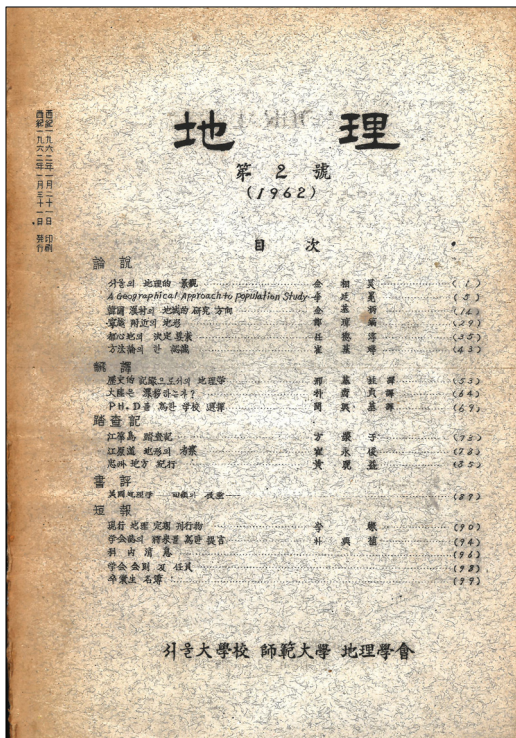


그림 7. 한국에서 두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인 「지리」제2호(1962)의 국문표지(좌) 및 영문표지(우)

출처 : (좌)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앞표지. (우)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 뒤표지.

* 「지리」제2호(1962)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이어서 ‘한국에서 두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 간주된다. 그림의 「지리」제2호(1962)는 민흥기 전 교장(경기고등학교)의 소장본인데, 내지의 건조화(乾燥化)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다.

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와 대한지리학회의 부분적 기능 중복과 「지리」와 「지리학」의 부분적 기능 중복으로 인해서 결국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존속이 어려웠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학회지 「지리」의 속간 발행도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지리」제2호(1962)의 발행주체

「지리」제2호(1962)의 발행주체, 즉 발행인은 앞표지(국문표지) 하단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學會)’로 표기되어 있고, ‘뒤표지(영문표지) 하단에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로 표기되어 있는데,¹³⁾ ‘뒤표지 하단의 영문표기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에 준하는 것이다. 이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Geographic Institute of Educational College Seoul University’와 다른 것인데, 이와 같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영문표기가 본래의 ‘Geographic Institute of Educational College Seoul University’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에 준하는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로 변경된 이유는 단순한 오키(誤記)이거나 학술지 발행

경험의 일침함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조직과 명칭은 「지리」제2호(1962)의 차호(次號)가 속간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후에도 계속 존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968년 12월 10일자로 발행된 「사대 지리학회 소식(The News Letter of Geographic Institute of Educational College Seoul National University)」제8호가 여전히 발행주체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로 명기하고, 제호를 ‘사대 지리학회 소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사대 지리학회 소식」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1968년 이전에 창간한 학회보(學會報)로서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보’로 추정된다.¹⁴⁾

3) 「지리」제2호(1962)의 성격

「지리」제2호(1962)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와 같이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발행한 ‘지리학회지 형태의 지리학술지’로서의 성격을, 그리고 부차적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발행한 ‘지리과 기관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부연하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는 국내 지리학계의 중심적 위치에 있어서 충실한 학회지를 내놓는 것은 본학회는 물론 한국 지리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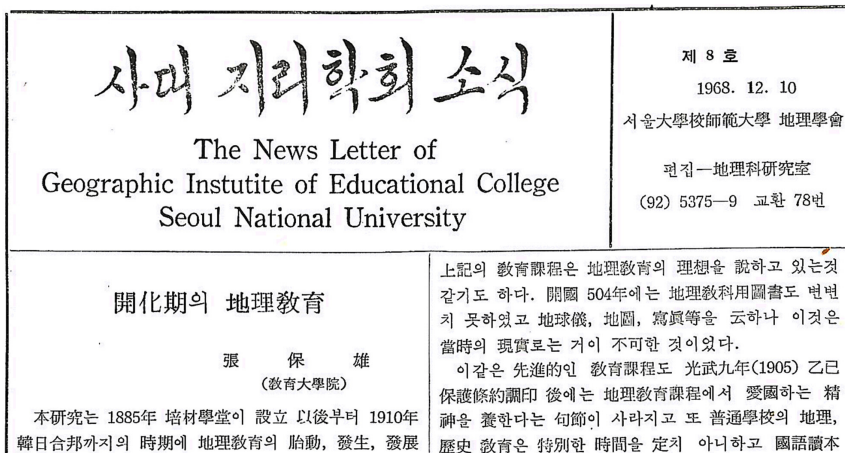


그림 8. 「사대 지리학회 소식」제8호(1968)(일부)

출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8:1.

* 「지리」제2호(1962)의 발행이 중단된 1963년 이후에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를 여전히 ‘사대 지리학회’로 약칭하고, ‘지리학회’ 부분의 영문 명칭을 「지리」제1권 제1호(1959)와 같이 여전히 ‘Geographic Institute’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지리」제2호(1962)가 ‘지리학회’ 부분의 영문 명칭을 ‘지리과’라는 의미의 ‘DEPARTMENT OF GEOGRAPHY’로 표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그림의 「사대 지리학회 소식」제8호(1968)는 이기석 명예교수의 소장본이다.

다는 임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지리」제2호(1962)는 내용적으로 전문적 학술지로서 범한국적, 나아가서 범세계적 무대에서 가치있고 우수한 학술지를 지향하면서(‘학회지의 장래를 위한 제언’, 94쪽) 부수적으로 답사보고, 과내 소식 및 졸업생 동태도 다루고자 하였다.

한편, 「지리」제2호(1962)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비해서 「지리학회지」의 성격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논설’의 수가 기존의 2개에서 6개로 증가됐고, ‘번역’ 및 ‘서평’이 새로이 추가되어 각각 순서대로 3건 및 1건 게재됐고, 그리고 기존의 ‘기록 3건(학회 회칙 및 임원, 졸업생 명부, 학내 소식)’이 ‘단보(短報)’로 개칭되면서 ‘학회지 관련 내용물 2건(‘현행 지리 정기 간행물’, ‘학회지의 장래를 위한 제언’)이 추가된 데서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지리」제2호(1962)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비해서 지리과 잡지로서 지리과 기관지의 성격은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의 기록 3건을 유지하면서도 답사기의 수가 기존의 4건에서 3건으로 감소된 데서 알 수 있다.

4) 「지리」제2호(1962)의 편집위원회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경우 ‘편집위원회 조직 및 명단’은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달리, 「지리」제2호(1962)의 경우 편집위원회 조직 및 명단이 편집후기의 끝부분(102쪽)에 제시되어 있는데, 편집위원회 조직은 편집위원 대표 1명 및 편집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 대표 민흥기(閔興基, 3년), 편집위원 이병설(李炳奩, 4년)·이기석·(李琦錫, 3년)¹⁵⁾·송상석(宋常石, 3년)·최학준(崔學俊, 2년)·박항남(朴恒男, 2년)·방영자(方榮子, 1년)

5) 「지리」제2호(1962)의 인쇄시기·발행시기·권호

「지리」제1권 제1호가 1959년에 발행되었는데, 차호인 「지리」제2호는 3년이 지난 1962년에 지연해서 발행되었다. 「지리」제2호(1962)의 인쇄시기 및 발행시기는 앞표지의 좌측 상부에 각각 순서대로 1962년 1월 21일과 1962년 1월 31일로 표기되어 있다.

「지리」제2호의 권호 표기를 보면, 창간호의 ‘제1권 제1호’와 달리 ‘권’ 표기 없이 ‘제2호’로 표기 방식이 달라져 있는데, 이는 1년간 2건 이상의 호를 발행한다는 창간 당시의 계획이 수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권호 표기 방식 변경에 따른 발행 건수 축소의 가장 큰 원인은 ‘편집후기’(101~102쪽)의 첫째쪽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발행 비용 증당의 어려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지리」제2호(1962)의 인쇄유형·판형·지질

「지리」제2호(1962)는 필경(筆耕)에 의한 등사본(謄寫本)으로 되어 있는데, 규격을 판형으로 보면 사륙배판(188×257mm)에 준하는 판형(175×253mm)이다.¹⁶⁾ 이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판형인 국판(148×210mm)을 대폭 확대한 것인데, 이는 당시 日本地理學會(일본지리학회)가 발행하던 「地理學評論(지리학평론)」의 판형인 사륙배판을 주로 참조하여 발전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제2호(1962)의 지질을 보면, 국문표지(앞표지) 및 영문표지(뒤표지)는 회색의 두터운 재생용지(再生用紙)를 사용하고, 내지는 갱지(更紙)¹⁷⁾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제2호(1962)의 인쇄유형 및 지질은 「지리」제1권 제1호(1959)가 활판에 스노우지를 사용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이와 같이 「지리」제2호(1962)의 인쇄유형 및 지질이 낮아진 가장 큰 원인은 편집후기의 첫째 쪽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발행 비용 증당의 어려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 「지리」제2호(1962)의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

「지리」제2호(1962)의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8) 「지리」제2호(1962)의 내용구성

「지리」제2호(1959)의 내용은 앞표지에 기재된 목차를 통해서 보면, 논설 6편, 번역 3편, 답사기 3편, 서평 1편 및 단보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별 필자는 지리과 내외 교수, 대학원생(석사과정) 및 학부생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지리」제2호(1959)의 경우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비해서 ‘논설’의 수가 2개에서 6개로 증가됐고, ‘번역’ 및 ‘서평’이 새로이 추가되어 각각 순서대로 3건 및 1건 게재됐고, 그리고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기록 3건(학회 회칙 및 임원, 졸업생 명부, 학내 소식)’이 ‘단보’로 개칭되면서 ‘학회지 관련 내용물 2건(‘현행 지리 정기 간행물’,

‘화회지의 장래를 위한 제언’)이 추가되었다. 또한, 「지리」제2호(1959)의 경우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비해서 ‘답사기’의 수가 4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다.

(1) 논설

‘논설’은 “서울의 지리적 경관”(본과 주임교수 김상호), “A Geographical Approach to Population Study”(4회 졸업 경희대학교 교수 Lee, Chung Myun(이정면·李廷冕)), “한국 어촌의 지역적 연구방향”(불명(不明) 김기병(金基炳)), “영월 부근의 지형”(12회 졸업 대학원 재학중 성신여중 교사 정장호), “도심지의 결정요소”(4학년 임덕순(任德淳)) 및 “방법론의 한 인식”(4학년 최기엽(崔基燁))의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⁸⁾

「지리」제2호(1962)의 경우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서론·본론·결론 및 영문요약으로 구

성된 논설의 일반적 형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리」제1권 제1호(1959)가 지리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심으로 발행되었던 데 비해 「지리」제2호(1959)는 지리과 내외의 교수들이 논설, 서평 및 단보의 작성자로 참여하고 있다. 「지리」제2호(1959)가 「지리」제1권 제1호(1959) 발행 이후 3년이 지연되어 발행되었지만, 교수들이 원고를 제공하면서 지리학회지 형태의 지리학술지로서 질적 향상은 물론 그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연하면, 제1권 제1호(1959)에는 교수가 작성한 논설이 게재되지 않았으나, 「지리」제2호(1962)에는 논설 총 6편 중 2편이 당시 교수가 작성한 것이었는데, 김상호(지리과 교수)의 “서울의 지리적 경관”과 이정면(4회 졸업, 경희대 교수)의 “A Geographical Approach to Population Study”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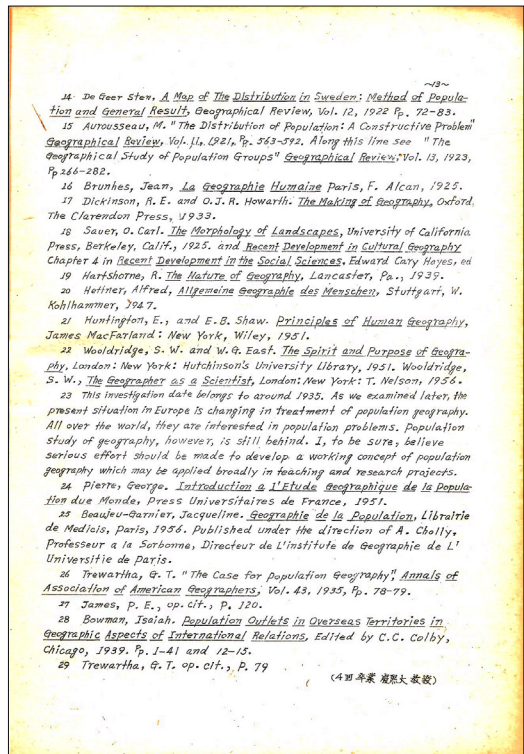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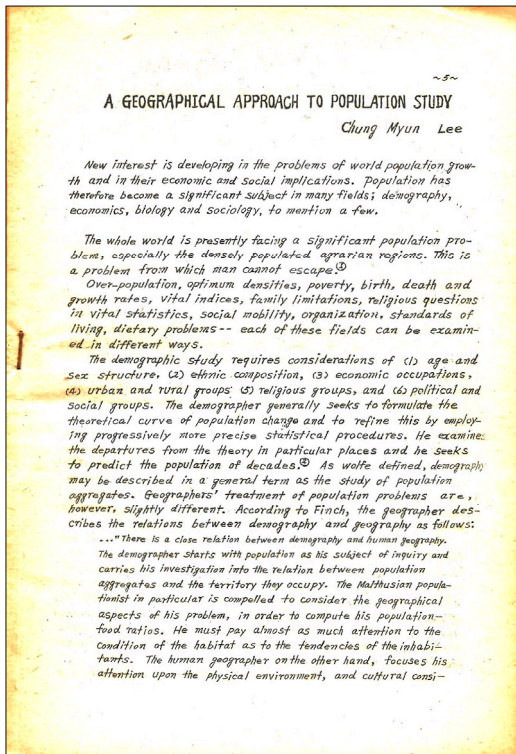


그림 9. 「지리」제2호(1962)에 게재된 이정면의 논설, “A Geographical Approach to Population Study”(일부)

출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5:13.

* 그림의 좌측은 논설의 첫체쪽으로 서론과 본문의 일부가 기입되어 있고, 우측은 논설의 끝쪽으로 미주(尾註)의 일부가 기입되어 있다. 논설은 9쪽 분량으로 전체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서론, 본론 및 요약·결론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29개의 미주가 제시되어 있다. 작성자, 이정면(1925~2021)은 미국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61년),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및 미국 유타대학교(University of Utah) 지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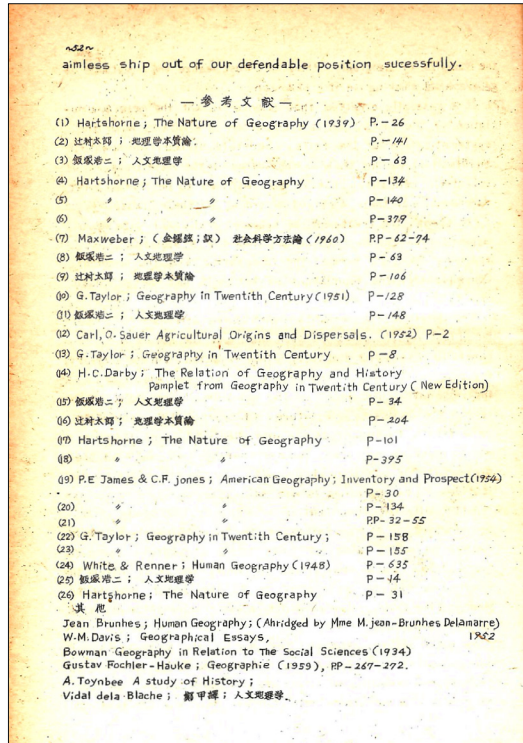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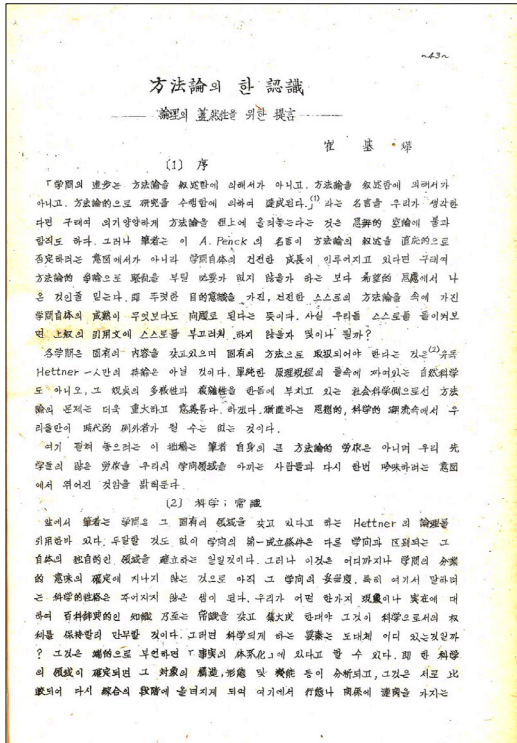


그림 10. 「지리」제2호(1962)에 게재된 최기엽의 논설, “방법론의 한 인식: 논리의 개연성을 위한 제언”(일부)

출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43·52.

* 그림의 좌측은 논설의 첫째쪽으로 서문과 본문의 일부이고, 우측은 끝쪽으로 영문요약 일부 및 참고문헌이다. 작성자, ‘최기엽’은 후일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87년),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2) 번역

‘번역’은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지리학’(10회 졸업 성신여고 교사 형기주), “대륙은 표이하는가?”(14회 졸업 박상정(朴尙貞) 및 “PH.D를 위한 학교 선택”(3학년 민흥기(閔興基))의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답사기

‘답사기’는 “강화도 답사기”(1학년 방영자(方榮子)), “강원도 지형의 고찰”(2학년 최영준(崔永俊) 및 “충주 지방 기행”(3학년 황만익(黃晩逸)¹⁹⁾의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서평

‘서평’은 “제임스·존즈: 미국지리학-회고와 전망.”(본과 교수 이찬(李燦)의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단보

‘단보’는 “현행 지리정기간행물: 주로 영문 및 영문초록

이 있는 것”(본과 교수 이찬), “학회지의 장래를 위한 제언”(3년 지리학회 회장 박흥식(朴興植)), ‘과내소식’, ‘학회 회칙 및 임원’ 및 ‘졸업생 명부’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보는 학술적 측면과 비학술적 측면의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지리정기간행물: 주로 영문 및 영문초록이 있는 것” 1편이 학술적 측면의 단보에 해당되고, 나머지 4편은 비학술적 측면의 단보에 해당된다. 단보 5편의 내역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④ 현행 지리 정기간행물: 주로 영문 및 영문초록이 있는 것

작성자, ‘이찬’은 “현행 지리 정기간행물: 주로 영문 및 영문초록이 있는 것”(90~93쪽)에서 Chauncy D. Harris가 편집한 「Annotated World List of Selected Current Geographical Serials in English」(Chicago University, 1960)와 John K. Wright 및 Elizabeth T. Platt가 공편(共編)한 「Aids to Geographical Research」(American Geograph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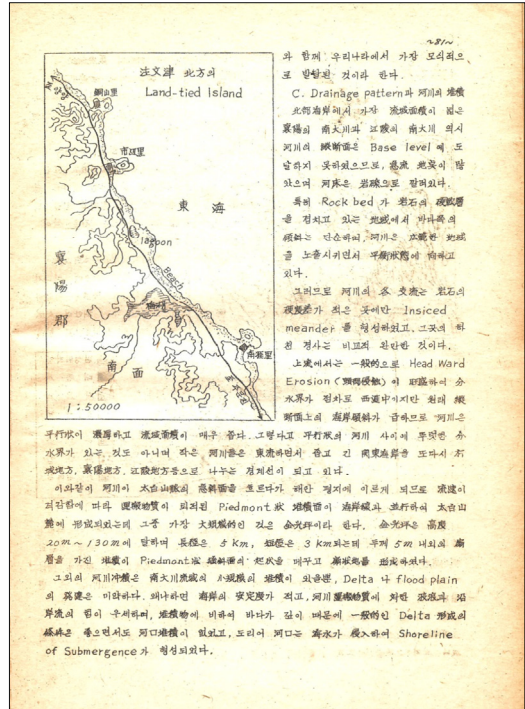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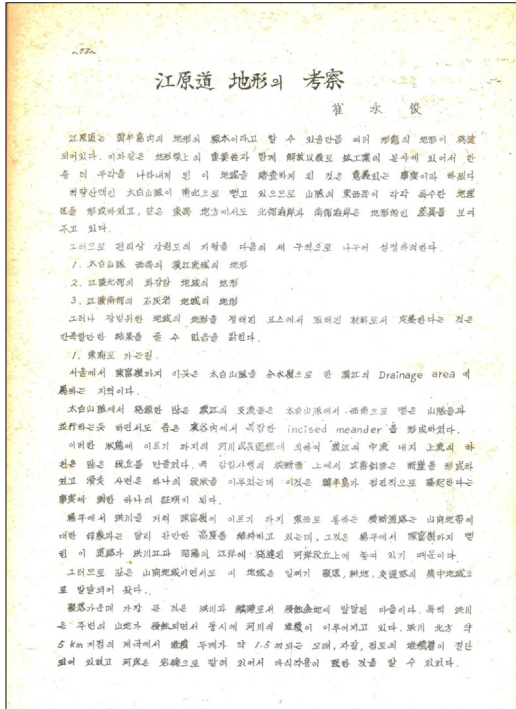


그림 11. 「지리」제2호(1962)에 게재된 최영준의 답사기, “강원도 지형의 고찰”(일부)

출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78~81.

* 그림의 위쪽 좌측은 답사기의 첫째 쪽이고, 위쪽 우측과 아래쪽 좌측은 답사기의 본문 일부이다. 그리고, 아래쪽 우측은 답사기의 끝 쪽이다. 총 8쪽 분량의 답사기 형식이지만, 가설-검증-일반화의 내용으로 구성된 거의 논설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작성자, 최영준(1941~2019)은 후일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Louisiana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82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를 역임했다.

Society, 1951, 3rd ed.)에 수록된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의 지리 정기 간행물 중 주로 영문 및 영문초록이 있는 것 23종을 추출하여 각 간행물의 서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② 학회지의 장래를 위한 제언

작성자 ‘박홍식’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회장으로서 “학회지의 장래를 위한 제언”(94~95쪽)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는데, 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는 국내 지리학계의 중심적 위치에 있어서 충실한 학회지를 내놓는 것은 본학회는 물론 한국 지리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학회지, 「지리」는 내용적으로 전문적 학술지로서 범한국적, 나아가서 범세계적 무대에서 가치있고 우수한 학술지를 지향하면서 부수적으로 답사보고, 과내 소식 및 졸업생

동태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망 속에 탄생했던 「지리」창간호 이후, 그의 속간이 중단된 제일 이유는 자금 문제였는데, 이로 인해 당초의 인쇄 계획이 변경되었다. 자금 문제의 타개를 위해선 ‘(가칭)사대지리학회지운영회’를 조직하여 출판회비징수액·범위를 결정하고, 재학생들로부터 회지대(會誌代)를 늘려 받기를 제안한다.”

③ 과내 소식

‘과내 소식’(96~97쪽)은 1961년도 제1·2학기에 관한 것인데, 주요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학기에는 신입생 환영회 및 학회임원 개선(改選)의 2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제2학기에는 외원 교구(外援教具) 인수, 추계답사, 답사발표회 및 최복현 교수 환송회, 환등회(幻燈會), 수요일음악감상회, 학회임원 이동 및 졸업생 환송회의 7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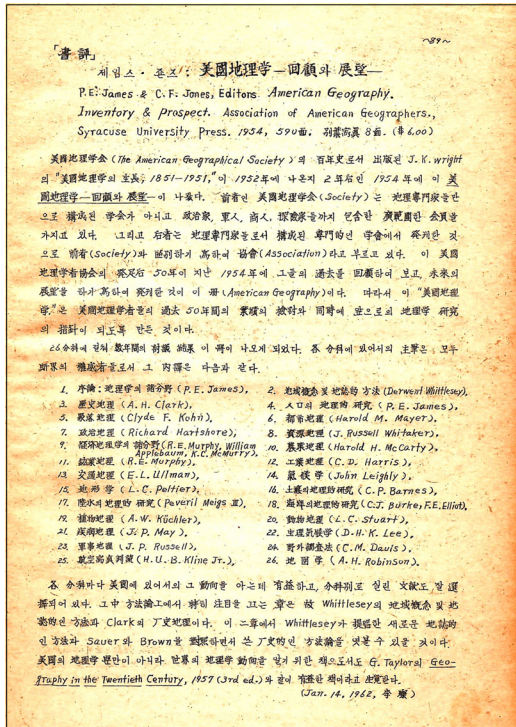


그림 12. 「지리」제2호(1962)에 게재된 이찬의 서평, “제임스·존스: 미국지리학-회고와 전망-”

출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89.

* 그림은 서평의 전문(全文)이다. 서평은 미국지리학회(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가 1954년에 시러큐스대학출판부(Syracuse University Press)를 통해서 간행한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 Prospect」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 저술은 James and Jones가 편집한 것이다. 작성자, 이찬(1923~2003)은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Louisiana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60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및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을 역임했다.

④ 학회 회칙 및 임원

「지리」제2호(1962)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회칙’(98쪽)이 게재되어 있는데,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게재된 것과 동일한 총 8장 17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리」제2호(1962)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임원으로서 고문, 회장, 부회장, 부장 및 명예회원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임원 전원이 학부 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98쪽):

고문: 본대학 지리과 교수 및 강사, 회장: 박흥식(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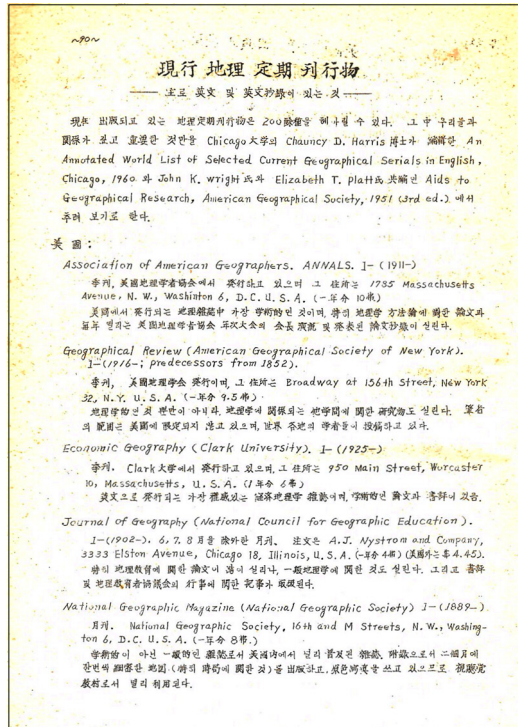


그림 13. 이찬의 단보, “현행 지리 정기 간행물: 주로 영문 및 영문초록이 있는 것”(일부)

출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90.

* 그림은 단보의 첫째쪽이다. 단보의 주요 내용은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의 현행 지리 정기 간행물 23종의 개략적 서지에 관한 것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Annals」(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Geographical Review」(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of New York), 「Economic Geography」(Clark University) 등 12종/ 영국: 「Geographical Journal」(Royal Geographical Society), 「Geography」(Geographical Association) 등 6종/ 독일: 「Die Erde」(Zeitschrift der Gesellschaft für Erdkunde zu Berlin), 「Erdkunde」(Archiv für wissenschaftliche Geographie) 등 3종/ 일본: 「地理學評論」(Geographical Review of Japan)(日本地理學會) 및 「人文地理」(Human Geography)(人文地理學會) 2종 등”이다.

부회장: 안성수(安性洙, 3년)·이수임(李壽任, 3년), 부장: 총무부 김문현(金文鉉, 3년)·문화부 박찬혁(朴贊赫, 3년)·연구부 이기석(3년)·도서부 송상식(3년), 명예회원: 본대학 지리과 졸업생

⑤ 졸업생 명부

졸업생 명부에는 1948년 서울대학교 졸업 제2회(사범대학 지리과 졸업 1회)부터 1962년 서울대학교 졸업 예

정 제16회(사범대학 지리과 졸업 예정 15회)까지 총 226명의 회별 졸업생 수와 명단 및 소속직장·대학원명이 게재되어 있다.

9) 「지리」제2호(1962)의 소장자·현재상태

「지리」제2호(1962)는 이기석 명예교수와 민흥기 전 교장이 각각 한권씩 소장하고 있다. 이기석 명예교수 소장본은 국문표지(앞표지)에 ‘팔역문고(八域文庫)’ 장서인(藏書印)이 찍혀 있는데, ‘팔역(八域)’은 이지호(1919~1986) 교수의 아호(雅號)이어서 본래 이지호 교수가 소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www.riss.kr>)에서 「지리」제2호의 소장처를 찾기 위해 「지리」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검색하면 우측에 관심학술지 명칭은 「지리(地理)」, 발행기관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발행연도는 「19uu」,²²⁾ 간기(刊期)는 「간행빈도 불명」, 소장기관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리고 검색하면 좌측에 「1962(1)」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기들로 보아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두 곳에 소장된 학술지, 「지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1962년에 1회에 걸쳐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www.riss.kr>)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두 곳에 위에서 검색된 학술지, 「지리」의 열람, 대출 또는 복사의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경우 대출, 열람 및 복사가 모두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의 경우 논설 6건, 번역 3건, 답사기 3건, 단보 2건 등 원문(原文)의 부분적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복사본의 해상도가 매우 낮아서 문장의 식별이 거의 어려운 상태라고 답신이 왔다.

이외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필자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의 서고에서 「지리」제2호를 찾은 바 있으나, 「지리」제1권 제1호와 마찬가지로 소장되어 있지 않았다.

「지리」제2호(1962)의 현재상태를 보면, 이기석 명예교수 및 민흥기 전 교장의 소장본 모두 국문표지 및 영문표지는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책등’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고, 갱지로 된 내지가 극도로 건조화되어 책을 펼치면 지면 일부가 훼손될 정도로 노후 정도가 심한 상태인데, 이는 「지리」제1권 제1호(1959)가 스노우지

를 사용한 활판인 것과 달리 「지리」제2호(1962)는 ‘갱지를 사용한 등사본’인데다가 발행된지 66년이 경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0) 「지리」제2호(1962)의 편집후기·개략서지·서적광고

(1) 편집후기·개략서지

「지리」제2호(1962)의 목차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학회지의 끝부분(101~102쪽)에 총 2쪽 분량의 편집후기가 게재되어 있는데, 그의 주요 내용을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²³⁾

“학회지를 속간하고자 할 때마다 원고는 쇠도했으나, 졸업생들의 경비 찬조에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워 인쇄 계획을 프린트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유일의 지리학회지로서 명실공히 「지리」의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했으므로 「지리」는 앞으로 학계에 많은 자극을 주리라 믿는다.”

「지리」제2호(1962)에는 「지리」 제1권 제1호(1959)와 달리 뒤표지 이면에 박스 형태의 개략서지는 게재되어 있지 않다. 단, 앞표지의 좌측 상단부에 인쇄 연월일(1962년 1월 21일) 및 발행 연월일(1962년 1월 31일)이 기재되어 있다.

(2) 서적광고

「지리」제2호(1959)의 경우 최영준의 답사기, “강원도 지형의 고찰”의 끝부분(84쪽) 및 이찬의 단보, “현행 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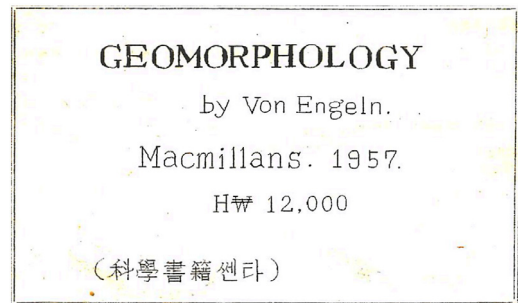


그림 14. 「지리」제2호(1962)에 게재된 서적 광고, 「GEOMORPHOLOGY」

출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84.

*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www.riss.kr>)에 의하면, 위 광고에서 서적의 원명(原名)은 ‘GEOMORPHOLOGY: SYSTEMATIC AND REGIONAL’이고, 저자의 원명은 O. D. von Engelmann이다. 이 서적의 초판은 1940년대 초(1942년경)에 New York의 The Macmillan Company에서 655쪽 분량으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기 간행물: 주로 영문 및 영문초록이 있는 것”의 끝부분 (93쪽)에는 각각 순서대로 서적 2권의 광고가 직사각형 안에 게재되어 있는데, 하나는 von Engel이 저술한 「GEOMORPHOLOGY」이고, 다른 하나는 김상호 교수가 저술한 「지리학개론」이다.

11) 「지리, 제2호(1962)의 발행의의·영향

「지리」제1권 제1호(1959)가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로서 ‘한국에서 최초로 창간된 지리학술지’이면서 ‘한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지리학술지’였다면, 그에 이어 속간된 「지리」제2호(1962)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였다. 이러한 「지리」제2호(1962)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와 같이 학회 회칙 및 조직 방식, 학회지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 등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당시 구미와 일본에서 발행되던 주요 지리학회지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리학회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특히, 「지리」제2호(1962)는 ‘학회지의 장래를 위한 제안’(94 쪽)에서 내용적으로 전문적 학술지로서 범한국적, 나아가서 범세계적 무대에서 가치있고 우수한 학술지를 지향

할 것을 제안했다.

「지리」의 발행주체(발행인)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실제적 창간 작업이 이루어진 1958년부터 「지리」제2호(1962)가 발행된 1962년까지 4년여에 걸친 비교적 단기간에 그 어떤 형태의 지리학술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리학회지 형태의 지리학술지’를 한국 최초로 발행하면서 ‘지리학회의 조직 및 운영 방식’, 그리고 ‘학회 차원의 지리학 연구 체계’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처음으로 터득하고 일정 수준까지 정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성과는 당시 존재하던 대한지리학회가 1945년 창립 이래 여전히 학회지를 창간하지 못하고 있던 시점이어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1963년에 대한지리학회가 체제나 질을 갖춘 정식학회지로서 「지리학」을 창간”(형기주, 1995:2)하면서 「지리」는 체제와 질에서 「지리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치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떤 형태의 지리학술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리학」이 간행된 시점보다 4년이나 앞서”(형기주, 1995:2) “「지리학회지 형태의 지리학술지」를 한국 최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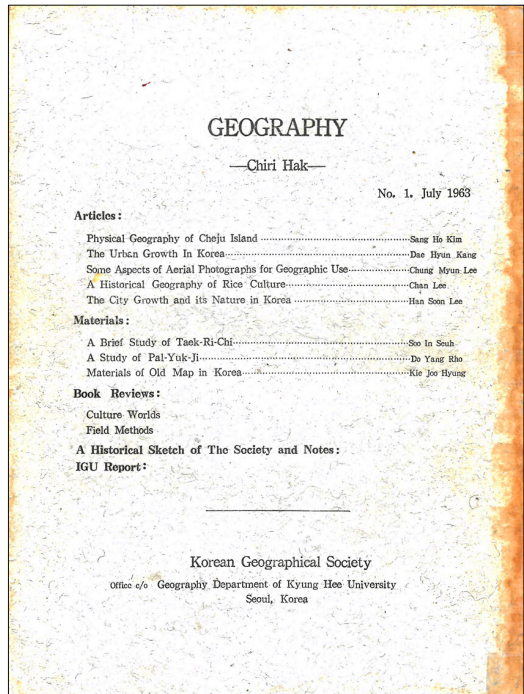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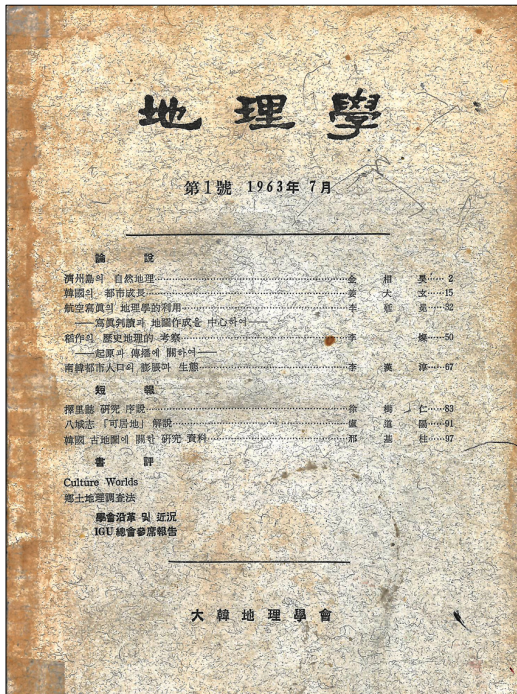


그림 15. 「지리」제1권 제1호(1959)·제2호(1962)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리학」제1호(1963)의 국문표지(좌) 및 영문표지(우) 출처 : (좌)대한지리학회, 1963:앞표지. (우)대한지리학회, 1963:뒤표지.

* 그림의 「지리학」제1호(1963)는 필자의 소장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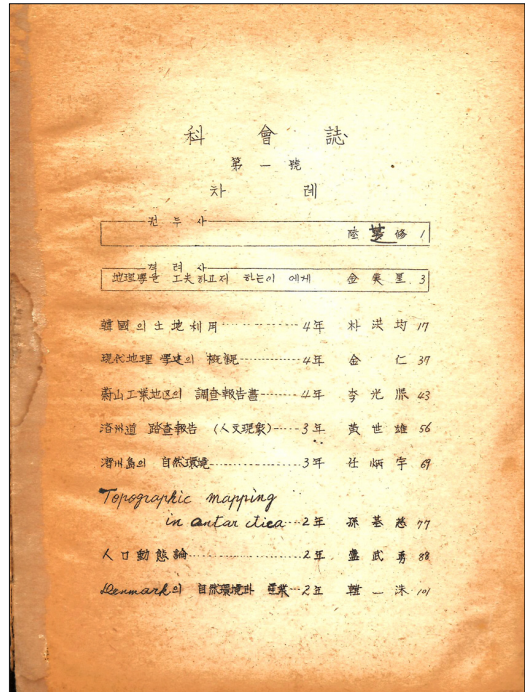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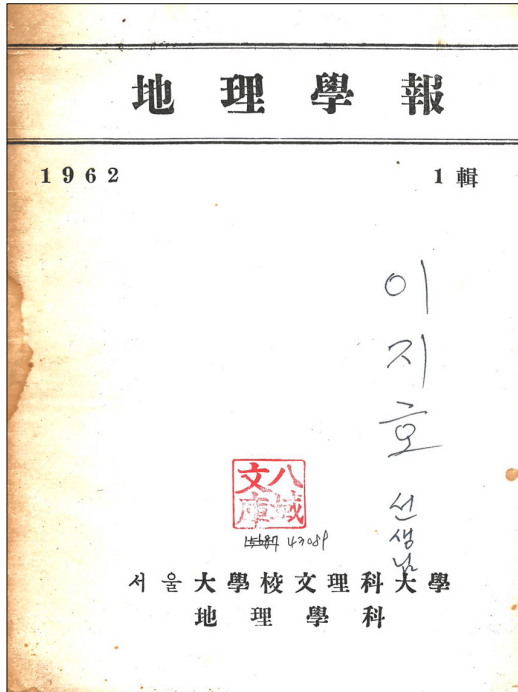


그림 16. 「지리학보」1집(1962)의 국문표지(좌) 및 차례(우)

출처 : (좌)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1962:앞표지. (우)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1962:차례.

* (좌)「지리학보」1집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창간된 지리학술지’이면서 ‘한국에서 세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 간주된다. 그림의 「지리학보」1집은 이기석 명예교수 소장본인데, 국문표지에 ‘이지호 선생님’이라는 수기(手記)와 ‘팔역문고(八域文庫)’라는 장서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 증정본 수령자인 이지호 명예교수가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학보」1집은 뒤표지에 영문표지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지리학보」1집은 이기석 명예교수 소장본 이외에 손정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가 1부 소장하고 있는데, 이는 본래 김인 명예교수(金仁,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가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현재 「지리학보」는 1집 이외에 ‘제3호’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수원보존서고에만 한권 소장되어 있다. (우)차례에는 ‘권두사’와 ‘격려사’가 있는데, 권두사는 육지수(陸芝修, 1907~1967)가, 그리고 격려사는 김경성(金庚星, 1918~1978)이 각각 작성한 것이다. 또한, 차례에는 김인의 “현대지리학사의 개관” 등 논문·단보·답사보고 총 8편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²⁴⁾

발행했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이은 「지리」제2호(1962)의 발행은 1945년 창립 이래 아직 학회지가 없던 대한지리학회가 1963년에 그의 학회지로서 「지리학」을 창간하는데 있어서 학회지의 국문 및 영문 제호, 규격 판형, 국문 및 영문 표지 디자인, 내지 편집형태, 편집규정 등에 전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리학」제1호(1963)의 국문 및 영문 제호, 규격 판형, 국문 및 영문 표지 디자인, 내지 편집형태, 편집규정 등이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의 그것들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데서 알 수 있다.

또한,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이은 「지리」제2호(1962)의 발행은 1962년에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학생들이 과회지(科會誌) 형태의 「지리학보」1집을 발행하는 데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학보」1집²⁵⁾은 「지리」제2호(1962)에 이어서 ‘한국에서 세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서²⁶⁾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와 더불어 1963년의 「지리학」창간을 촉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III. 요약 및 제언

1. 요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발행한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는 각각 순서대로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 및 ‘한국에서 두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서 현대한국지리학사에서 매우 귀중한 존재이다. 그간「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의 경우 제1권 제1호(1959)를 기준으로 보면 간행된 지 66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그들의 서지에 관해서는 어떤 구체적 조사·보고도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실물 사진조차도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의 서지를 발행경과, 발행주체, 성격, 편집위원회, 인쇄시기·발행시기·권호, 인쇄유형·판형·지질, 표지 디자인·내지 편집형태, 내용구성, 소장자·현재상태, 편집 후기·개략서지·서적광고, 발행의의·영향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표지 등의 일부 내역을 그림으로 공개하고자 했다.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 이면서도 그의 발행주체, 편집체제, 내용구성 등이 당시로서는 매우 준수하여 한국 현대지리학의 초창기에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리」제2호(1962)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비해 인쇄 수준이 프린트본으로 저하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와 동일한 양상을 유지하면서 지리학술지로서의 성격을 대폭 강화했고, 규격을 국판에서 사륙배판으로 발전적으로 확대하여 지리학술지로서 갖출 것은 대부분 갖추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는 「지리」제2호(1962)의 속간 발행에 즈음해서 국내 지리학계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충실한 학회지를 내놓는 것은 본학회는 물론 한국 지리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범한국적, 나아가서 범세계적 무대에서 가치있고 우수한 학술지를 지향하면서 전문적 학술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했다.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는 지리학술지로서 특히, 지리학회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회지의 국문 및 영문 제호, 앞·뒤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 회칙, 편집규정 등에 있어서 당시 일본과 구미에서 발행되던 주요 지리학회지들, 특히 일본에서 발행되던 「인문지리」 및 「지리학평론」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 체제를 갖춘 정식의 지리학회지가 출현한 것은 물론 1963년에 대한지리학회가 발행한 「지리학」제1호

이다. 그러나, 학회지의 체제나 질에 상관없이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지를 논한다면, 그것은 「지리학」제1호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1959년 간행한 「지리」제1권 제1호이다(형기주, 1995:2).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의 발행은 1963년에 대한지리학회에 그의 학회지로서 「지리학」을 창간하는 것을 촉진하고, 학회지 「지리학」의 국문 및 영문 제호, 앞·뒤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 편집규정 등에 전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역설적이지만 1963년의 「지리학」 창간은 1963년 이후 「지리」의 발행 중단을 결정적으로 촉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의 발행은 1962년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학생회가 과회지 형태의 학술지 「지리학보」 집을 발행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지리학보」 집은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와 함께 1963년 「지리학」의 창간을 촉진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는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지리」제2호(1962)를 발행할 즈음에 학회보 형태의 「사대 지리학회 소식」을 창간했는데, 이는 1969년에 대한지리학회에 「지리학회보」를 창간하도록 자극하고, 「지리학회보」의 편집형태 등에 전형적인 선례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대 지리학회 소식」은 「지리학회보」보다 앞서 창간되어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보’로 추정된다.

1945년 창립된 대한지리학회에 회원(會員) 수의 과소(寡少), 재정 능력의 빈약 등과 같은 내적 사정 및 사회적 불안, 경제적 빈곤 등과 같은 외적 사정에 의해서 아직 학회지와 학회보를 창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에 회칙과 그에 따른 조직을 갖추고 학회지로서 「지리」를 1959년에 창간하고, 그리고 학회보로서 「사대 지리학회 소식」을 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前半)의 기간에 창간했는데, 이는 참으로 경이로운 일로서 현대한국지리학사상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지리」가 학회 내외의 여러 부정적 요인에 의해서 1962년의 제2호 발행을 끝으로 더 이상 속간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는 1959년에 창간된 「지리」가 1963년 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 창간에, 그리고 1968년 이전에 창간된 「사대 지리학회 소식」이 1969년 대한지리학회보, 「지리학회보」 창간에 각각 마중물과 밑알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2. 제언

본고에서는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지리」제2호(1962)의 서지를 개관적으로 고찰했으므로 차후 논설을 비롯해서 단보, 보고, 답사기, 번역, 서평 등의 게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특히 두 권의 「지리」에 게재된 논설, 단보, 답사기, 서평 등의 개별 내용들의 대부분이 계통지리학 및 지역지리학의 세부 분야별로 ‘한국 최초의 것’에 해당되고, 1950년대 후반 당시 한국 지리학의 교육·연구의 동향 및 수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후 1946년에 ‘한국 최초의 지리계열 학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가 설립되고, 그 과의 학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를 창립하고, 그리고 그 학회가 1959년에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로 「지리」를 창간하고, 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의 기간에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보’로 ‘사대 지리학회 소식’을 창간한 것은 해방 후 현대한국지리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가오는 2029년은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로 간주되는 「지리」제1권 제1호(1959)가 발행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그 즈음에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발행을 기념하는 조출한 자리라도 마련되길 바란다.²⁷⁾

끝으로, 1945년 해방 이후 현대한국지리학사의 개략적 내역은 그간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제29차 세계지리학회 조직위원회, 2001), 「현대한국지리학사」(오홍석, 2004), 「대한지리학회70년사: 1945~2015」(대한지리학회, 2016)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드러나 있지만, 본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시적으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²⁸⁾ 따라서, 이제는 한국의 지리학자들이 현대한국지리학사의 미시적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²⁹⁾ 이는 1945년 해방을 현대한국지리학사의 기점(起點)으로 설정해도 이미 80여년이 지나고 있어서 대학도서관, 지리학과·지리교육과, 지리학자 등이 소장하던 많은 관련 자료들이 빠르게 훼손되거나 폐기되고 있고,³⁰⁾ 현대한국지리학의 여명기에 학부 및 대학원을 다니고 교육자 및 연구자로 활동했던 분들이 최근 들어 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註

- 1) 정장호(1976:44·47)는 1975년 당시 각 대학 및 대학원에서 발간되고 있는 학술잡지의 내역을 창간연도순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에서 「지리」가 창간된 해와 같은 1959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과에서 「녹우회보」가 창간되었고, 1975년까지 17호가 출간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필자는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과는 지리, 역사 및 일반사회의 3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녹우회보」 창간호에 지리, 역사 및 일반사회의 3개 분야의 연구물들이 함께 게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본고에서는 1959년 「녹우회보」창간호를 ‘지리학술지’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과 학술지’로 간주했다. 필자의 위와 같은 추정적 간주를 확인할 수 있는 현존의 유력·유일 자료인 「한국지리논문목록」(이기석·윤정숙, 1982:1-64)에서 「녹우회보」 창간호에 게재된 지리 분야 논문을 검색한 결과, 「녹우회보」 창간호에 지리 분야 논문으로 “자연환경과 인생”(조경자, 1959:113-122) 및 “제주도지리조사보고”(홍금자, 1959:5-24)의 단 2편만이 게재되어 있었다. 이로 미루보면, 「녹우회보」 창간호에는 지리 분야 논문 2편 이외에 역사 및 일반사회 분야의 논문들이 여럿 게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들과 관련하여 필자가 「녹우회보」 창간호(1959)를 직접 입수하여 확인하고자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www.riss.kr/>)에서 「녹우회보」 창간호(1959)를 소장한 여러 대학도서관들에 앞표지, 차례 등의 부분 복사를 요청했으나 입수가 불가능했고, 2025년 7월 초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과 이영민 교수에게 학과, 연구실 등에 소장되어 있는지 문의했으나 소장되어 있지 않다는 전갈이 온 바 있다.
- 2) 「지리」제2호(1962)의 경우 「지리」제1권 제1호(1959)와 달리 본래 권 표기가 없다. 「지리학보」 1집 표기 중 ‘1집’ 표기는 앞표지(국문표지)에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제1집’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1집’으로 표기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지리학보」 제3호 표기 중 ‘제3호’ 표기는 앞표지(국문표지)에 ‘1집’ 표기에 이어서 ‘3집’ 또는 ‘제3집’으로

- 표기되어 있지 않고 '제3호'로 표기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또한,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와 「지리학회」1집은 원본(책자)을 구했고, 「지리학회」제3호는 일부 쪽수(총 38쪽 중 11쪽)의 스마트폰 촬영본(jpg 파일)을 구했다.
- 3) '논설'은 현재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논문(論文)'을 의미한다.
 - 4) 최복현(1906~1979)은 일본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廣島高等師範學校) 문과를 졸업했고(1931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 교수, 서울시교육감 등을 역임했다.
 - 5) 앞표지(국문표지) 하단부에는 본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지(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學會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學會)'의 오기(誤記)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뒤표지(영문표지) 하단부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영문 표기가 'Geographic Institute of Educational College Seoul University'로 정상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지리」제2호(1962)의 앞표지 하단부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學會)'라고 수정하여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지'라는 자구가 오기가 아니라면, 이는 지리학술지(지리학회지)를 국내에서 처음 발행하면서 관련 경험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6) 임한수(1935~1992)는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84년),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현영(1938~2023)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85년),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권혁재는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Louisiana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69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를 역임했다.
 - 7) 본고에서 인적사항은 고이병설교수유고논집간행위원회(1997), 대한지리학회(1987; 2008; 2009; 2016), 오홍석(2004), 대한지리학회(<https://www.kgeography.or.kr/>) 등의 자료를 참조했다.
 - 8) 김상호(1918~2002)는 후일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67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및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지호(1919~1986)는 일본 릿쇼대학(입정대학) 고등사범부 지리역사과를 졸업했고(1944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 교수를 역임했다.
 - 9)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증정본 수령자로 추정되는 '서명원'은 「지리」제1권 제1호(1959) 간행 당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재직하고 있던 '서명원 교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명원(1919~2006)은 1955~1977년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재직하면서 부총장, 교무처장, 사범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고, 이후 숙명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 및 경원대학교 총장, 문교부장관, 학술원 회원 등을 역임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10) '발 바춤하여'에서 '발 바춤'의 의미를 여러 국어사전에서 찾자 했으나,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오자(誤字)·탈자(脫字)가 아니라면, 문맥으로 보아 '바탕으로'의 의미로 추정된다.
 - 11) 인용문의 일부 자구는 현재의 국어 어법에 맞게 수정했다.
 - 12) '1963년 이후 「지리」의 발행 중단 이유' 중 발행 비용 및 양질의 논문 원고 확보의 어려움은 1964년 이후 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의 지연 발간에도 그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지리학회(2016: 110)에 따르면, 1963년에 제1호가 발간된 「지리학」은 1966년에 제2호가, 그리고 1968년에 제3권 1호가 각각 발간되었는데, 이러한 지연 발간은 발행 비용 및 양질의 논문 원고 확보의 어려움이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지리학회(2016:110)는 “곤란한 가운데 애로를 극복해 가면서 학회지를 창간하였으나, 당시 사정은 매년 학회지를 간행할 수 있는 사정이 못되었다. …… 특히, 발행 비용 확보를 위해서 당시 과학기술처의 지원을 받거나 출판사(교육출판사, 동아출판사)를 발행처로 하기도 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 발행주체(발행인)가 누구이든 학회지를 발간하는데 발행 비용 및 논문 원고 확보의 문제가 매우 극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1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영문 표기 중 'DEPARTMENT OF GEOGRAPHY'가 실제로는 'DPARTMENT OF GEOGRAPHY'로 표기되어, 'DEPARTMENT' 표기 중 앞의 'E'가 누락되어 있

는데, 이는 오기로 추정된다.

- 14) 「사대 지리학회 소식」제8호(1968)는 사륙배판(四六倍判: 188×257mm)에 준하는 판형(192×262mm) 및 활판인쇄본으로 총 4쪽 분량이며, 편집자는 '지리과연구실'로 되어 있는데, 1~3쪽에 "개화기의 지리교육"(교육대학원 장보웅(張保雄), 1~2)과 "H.S.G.P.의 단원 4 공업을 읽고"(대광중고등학교 교사 박성호(朴成鎬), 2~3)와 같은 단보 2편 및 "Monsoon Asia(H. Robinson, 1966, MacDonalld & Evans Ltd.)(창덕여자중고등학교 교사 박상정(朴商貞), 3)와 같은 서평 1편이 게재되어 있고, 3~4쪽에 과내 소식, 졸업생 소식 및 학계 소식이 게재되어 있어서 이 소식지가 단순한 학회 소식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 지리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 및 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의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학회보였거나 1963년 이후 「지리」의 발행 중단에 따른 대안으로 지리학회지 기능과 학회 소식지 기능을 동시에 가진 학회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부연하면, 「사대 지리학회 소식」은 제8호가 1968년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의 발행 직후에 정규(定規)의 지리학회지로서 「지리」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소홀해지지는 현장지리교육 자료를 소개하고 「지리」에서 학회 소식 내용을 빼내어 담기 위해서 창간되었거나 또는 1963년 「지리」의 발행 중단 직후에 「지리」의 축소판 대체학술지(縮小版 代替學術誌)로 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대 지리학회 소식」의 정확한 창간년도, 발행주기 및 중간년도는 현재로선 알기 어려우나, 1968년 12월에 제8호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 1960년대 초반이나 중반에 년간 또는 반년간으로 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대 지리학회 소식」의 발행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일반적 학회로서 갖추어야 할 2개의 기본적 발행지로서 학회지와 학회보를 모두 다 갖추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8년 이전에 창간된 「사대 지리학회 소식」은 대한지리학회가 「지리학회보」를 1969년에 창간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보」로 추정된다. 「사대 지리학회 소식」은 1969년에 대한지리학회가 학회보로서 「지리학회보」(제1권 제1호)를 창간

하도록 자극하고, 「지리학회보」의 체제와 형태에 전형적인 선례(先例)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리학회보」가 「사대 지리학회 소식」보다 여러 해 늦게 창간된 가운데 「지리학회보」의 창간취지, 규격, 분량, 내용구성 등이 「사대 지리학회 소식」의 그것들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리학회보」의 창간취지는 당시 대한지리학회장 강석오(姜錫午)의 창간사(創刊辭)에 잘 드러나 있는데, "학회지 「지리학」이 지리학 연구경향, 지리사조, 자연, 인문지리의 조사연구, 지리교육 등에 관한 학문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간행되는 것에 대해 「지리학회보」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하여 변동교재, 지리학계 소식 등을 적시에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간행한다."가 그것이다. 이러한 「지리학회보」의 창간취지는 「사대 지리학회 소식」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 15) 이병설(1938~1996)은 후일 일본 도쿄도립대학(東京都立大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7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기석은 후일 미국 미네소타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77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학과 및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 16) 형기주(1995:2)는 「지리」제2호(1962)의 판형을 '4×6배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17) '갱지'는 지면(紙面)이 좀 거칠고 품질이 낮은 종이로 주로 신문지와 시험지로 쓴다. '프린트본'은 필경, 즉 원지(原紙)에 글을 써서 등사한 것이다.
- 18) 정장호(1936~2019)는 당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이었는데, 후일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1962년), 수도여자사범대학(세종대학교의 전신) 및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를 각각 역임했다. 임덕순(1939~2010)은 후일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85),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 19) '황만익'은 후일 미국 테네시대학교(University of Tennessee)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82년),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및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를 역임했다.

- 20) 원문의 일부 자구를 문맥 연결을 위해서 수정했다.
- 21) 과내 소식 중 ‘외원교구 인수’는 Peabody팀의 원 조계획에 따른 외원교구를 인수한 것이었고, ‘답사발표회 및 최복현 교수 환송회’ 중 최복현 교수 환송회는 최복현 교수가 서울 중앙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출하는 데에 따라 열린 것이었고, 그리고 환송회는 세계일주를 마친 김찬삼(金燦三) 선배를 초청한 것이었다.
- 22) 발행연도가 ‘19uu’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발행연도가 ‘불명(不明)’임을 의미한다.
- 23) 원문의 일부 자구를 문맥 연결을 위해서 수정했다.
- 24) ‘육지수’는 경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64년), 학술원 회원을 역임했다. ‘김경성’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Illinois State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1956년). ‘김인’은 후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72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 25) 「지리학보」1집(1962)의 경우 뒤표지 이면에 개략서지가 없어서 별도의 발행주체(발행인) 표기는 없으나, 앞표지(국문표지) 하단부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표기를 통해서, 그리고 앞표지 다음 쪽의 ‘차례’ 상단에 명기된 ‘과회지(科會誌)’ 표기를 통해서 발행주체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학생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는 ‘권두사’에 있는 “문리대 지리학과 학생들은 평소 자기들이 생각해 온 것을 우선 한번 모두어 사회의 비판을 받으려고 이 책자를 편찬(編纂)하게 된 것이다. 이 책자는 학생들의 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많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발행주체가 지리학과 학생회임을 알 수 있다.
- 필자가 최근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리학보」는 1962년에 발행된 ‘1집’과 1966년에 발행된 ‘제3호’의 두개 호만 실물 원본이 드러나 있고, 다른 권호는 실물 및 기록 두 측면 모두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리학보」1집은 현재 이기석 명예교수와 손정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가 각 1부씩 소장하고 있는데, 이기석 명예교수 소장본은 내지의 지질 건조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 손정렬 교수 소장본은 손정렬 교수의 전

언에 의하면 본래 김인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가 소장하던 것이었다. 「지리학보」1집의 경우 이기석 명예교수 소장본에 따르면, 앞의 국문표지는 활판인쇄로 되어 있고, 내지는 필경에 의한 등사본이며, 그리고 내지는 차례 1쪽 이외에 총 104쪽 분량에 권두사 및 격려사와 논문·단보·답사보고서 총 8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학보」제3호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www.riss.kr>)를 통해서 보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수원보존서고에 1부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손정렬 교수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snu.ac.kr/>)에서 「지리학보」제3호는 일반검색으로는 ‘발행연도 미상(19uu)’의 「지리학보」로 나오지만, 학내에서의 상세정보검색으로는 ‘1966년에 간행된 「지리학보」 3집’으로 되어 있다. 손정렬 교수에 의하면, 수원보존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지리학보」제3호는 대출불가 상태여서 열람하면서 사진 촬영만 가능했다. 손정렬 교수가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수원보존서고에 있는 「지리학보」제3호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표지 및 내지 전체가 활판인쇄본으로, 전체적으로는 표지, 편집후기 및 서지를 제외하고 총 38쪽 분량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목차, 발간사, 논문·단보·답사보고서(총 6편, 총 36쪽), 부록(졸업논문 목록, 졸업생 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학보」제3호의 호 표기는 ‘제3호’ 이외에 ‘Vol.3’(앞부분 내표지)과 ‘통권3호’(마지막 쪽 하단부의 개략서지)로도 하고 있다. 「지리학보」1집의 분량이 총 104쪽이었는데, 「지리학보」제3호(1966)의 분량이 총 38쪽으로 대폭 감소된 것을 감안하면, 당시 발행비용 확보 및 원고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6) 「지리」제1권 제1호(1959)·제2호(1962) 및 「지리학보」1집(1962)의 창간 내지 발행 사항을 상술하면,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로서 ‘한국에서 최초로 창간된 지리학술지’이면서 ‘한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 「지리」제2호(1962)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 그리고 「지리학보」1집(1962)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창간된 지리학술지’이면서 ‘한국에서 세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 각각 간주된

다. 이러한 사항에 덧붙여서 지리학술지의 범주에 1963년에 창간된 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제1호를 포함해서 견준다면, 「지리학」제1호는 ‘한국에서 세 번째로 창간된 지리학술지’이면서 ‘한국에서 네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 간주된다. 「지리」제2호와 「지리학보」1집이 모두 1962년에 발행되었는데, 「지리」제2호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 그리고 「지리학보」1집은 ‘한국에서 세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 각각 간주하는 것은, 「지리」제2호의 발행시기가 1962년 1월 31일로 명기되어 있고, 그리고 「지리학보」1집의 발행시기가 1962년 11월 15일~1962년 12월 말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지리학보」1집의 경우 학술지의 발행시기가 앞표지에 기재된 ‘1962’ 이외에는 없고, 답사보고(학술보고)인 “제주도의 자연환경: 학술보고의 일부”(임병우, 69-76)의 말미에 ‘11월 15일 서울에서’, 그리고 단보인 “Denmark의 자연환경과 산업”(한일수, 101-104)의 말미에 ‘1962년 10월 30일’이라는 표기에 근거해서 1962년 11월 15일~1962년 12월 말일 기간 중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 27)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 「지리」의 창간 및 발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교수, 대학원생 및 학부생은 후일 대부분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당시 최복현, 김상호, 이지호, 이찬, 이정면 등의 교수는 해방 이후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현대 한국 지리학의 1세대로서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교육 발전의 초석을 놓았고, 이들 교수들이 학부와 대학원(석사과정)에서 가르친 형기주, 정장호, 장보용, 최기엽, 임한수, 권혁재, 이현영, 임덕순, 이병설, 최영준, 이기석, 황만익 등은 현대 한국 지리학의 2세대로서 대부분 국내·외 대학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70년대~2000년대의 기간에 대학에 재직하면서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현대 한국 지리학의 2세대로서 민흥기 등은 중등학교 지리교육 현장에서 한국 지리교육의 발전을 견인했다. 「지리」의 창간 및 발행 당시 교수들은 강의실에서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교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학부생이 중심이 되어 지리학회를 조직하게 하고, 그 학회가 학술활동을 통해서 학회지와 학회보를 발행하도록 지도하여 당시 학부생들이 후일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중추적 인물들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지리」의 창간 및 발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교수들은 이미 전부 타계했고, 당시 대학원생 및 학부생이던 이들도 3분의 2 정도는 이미 타계했다. 「지리」의 창간 및 발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들의 공로를 기리고,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 28) 현대한국지리학사의 미시적 내역은 노도양·이정면(1963), 권혁재(1976), 정장호(1976), 김영성(1989), 형기주(1995; 2005a; 2005b; 2006a; 2006b; 2006c; 2007), 박관섭(1996), 이찬(1996)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다.
- 29) 이기석 명예교수는 최근 필자 등에게 수차례 ‘현대한국지리학사 연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다수의 현대한국지리학사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가 2014년에 발표한 “흔돈기 지리학자 정갑(鄭甲, 1904~1988) 교수의 생애와 활동”은 그의 현대한국지리학사 연구의 전형적 사례이다.
- 30) 부연하면, 본고에서 개관한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와 「지리학보」1집(1962) 및 제3호(1966)의 경우 현재 1~3권씩만 잔존해 있고, 그 중 일부는 극도로 훼손되어 있다. 관련 예를 하나 더 들면, 정갑이 해방 직후 번역해서 출간한 「인문지리학(人文地理學)」(Blache, 1922, 정갑 역, 1948) 및 「자연지리학(自然地理學)」(Davis, 1902, 정갑 역, 1949)의 경우도 실견(實見)이 가능한 원본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고이병설교수유고노집간행위원회, 1997, 「한국 기후 연구의 여명」, 고이병설교수유고노집, 서울: 도서출판 진우.
- 권혁재, 1976, “지리학”, 「한국현대문화사대계 II: 학술·사상·종교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1-235.
- 김영성, 1989, “한국 지리계 학과의 성장” 지리학연구, 14, 31-50.
- 노도양·이정면, 1963, “학회연혁 및 근황”, 지리학, 1, 114-115.

- 대한지리학회, 1969, 「대한지리학회보」, 제1권 제1호.
- 대한지리학회, 1987, 「대한지리학회 회원명부」.
- 대한지리학회, 2008, 「대한지리학회 회원명부」.
- 대한지리학회, 2009, 「대한지리학회 회원명부」.
- 대한지리학회, 2016, 「대한지리학회70년사: 1945~2015」, 서울: 푸른길.
- 박관섭, 1996, “해방전의 지리교육계를 회고하며,” 대한지리학회보, 50, 1-2.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1962, 「지리학보」, 1집.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1966, 「지리학보」, 제3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59, 「지리」, 제1권 제1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 「지리」, 제2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8, 「사대 지리학회 소식」, 제8호.
- 오홍석, 2004, 「현대한국지리학사」, 서울: 북메이트.
- 이기석, 2014, “혼돈기 지리학자 정갑(鄭甲, 1904~1988) 교수의 생애와 활동,” 지리교육논집, 58, 47-73.
- 이기석·윤정숙, 1982, 「한국지리논문목록: 1945~1980」, 서울: 보진재.
- 이기석·한주연, 1988, 「한국지리논문목록: 1981~1985」, 서울: 보진재.
- 이기석·김영현, 1993, 「한국지리논문목록: 1986~1990」, 서울: 백산출판사.
- 이찬, 1965, “한국지리학사,” 「한국문화사대계 III: 과학·기술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681-734.
- 이찬, 1996, “대한지리학회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1(2), 102-105.
- 이찬·이기석, 2002, “I. 인문지리학 연구 개요,” 「한국의 학술 연구: 인문지리학」, 인문·사회과학편 제3집, 대한민국학술원, 3-15.
- 정장호, 1976, “지리교육,” 지리학, 13, 41-49.
- 제29차 세계지리학회대회 조직위원회, 2001,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서울: 한올아카데미.
- 형기주, 1995, “신세기를 향한 대한지리학회: 역사의 뒷무대,” 대한지리학회보, 48, 1-3.
- 형기주, 2005a, “숫자로 본 대한지리학회 60년,” 대한지리학회보, 88, 8.
- 형기주, 2005b, “잊을 수 없는 사람들,” 대한지리학회보, 88, 1-5.
- 형기주, 2006a, “잊을 수 없는 일들(1): 한국의 지리학계, 1945~1969년,” 대한지리학회보, 90, 1-7.
- 형기주, 2006b, “잊을 수 없는 일들(2): 한국의 지리학계, 1945~1969년,” 대한지리학회보, 91, 1-6.
- 형기주, 2006c, “잊을 수 없는 일들(3): 한국의 지리학계, 1970년대,” 대한지리학회보, 92, 1-9.
- 형기주, 2007, “잊을 수 없는 일들(4): 한국의 지리학계, 1980년대,” 대한지리학회보, 94, 1-8.
- 人文地理學會, 1963, 「人文地理」, Vol.15, No.2.
- 日本地理學會, 1967, 「地理學評論」, 第40卷 第12号.
- Blache, Paul Vidal de La, 1922, Principes de Géographie Humaine publiés d'après les manuscrits de l'auteur par Emmanuel de Martonne, Paris: Librairie Armand Colin(정갑 역, 1948, 「인문지리학」, 서울: 연교사).
- Davis, W. M., 1902, Elementary Physical Geography, Boston: Ginn(정갑 역, 1949, 「자연지리학」, 서울: 아문각).
- James, P. E. and Jones, C. F., 1954,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 Prospect,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 Jones, C. F. and Darkenwald, G. G., 1954, Economic Geography, Revised Edi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최복현 역, 1958, 「경제지리」, 서울: 일조각).
- 대한지리학회, <https://www.kgeography.or.kr/>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s://lib.snu.ac.kr/>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s://www.riss.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